북·중·러, 66년만에 회동…'반미·반서방' 결속 천명

김정은·푸틴, 양자회담 열며 '혈맹' 과시…한 차로 회담장 향해

NYT "中, 새 국제질서 창출 의지…美 우선주의 역효과 경고음"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중국이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열어 러시아와 북한 정상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를 과시한 것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항해 새 국제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힌 이번 열병식은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상급 외빈 20여명이 톈안먼 망루(성루)에 함께 올라 반서방 연대의 결속을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선 것은 탈냉전 뒤 처음으로,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반면에 외국 주요 내빈 중 미국과 서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주요 지도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 서방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한 것을 두고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 시진핑 정권 간 갈등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고위 대표들은 눈에 띄게 불참했지만 동남아와 중앙아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등 우방들 위주로 초대해 세를 과시한 이번 열병식은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자리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중국센터장은 NYT에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시스템을 개편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 등을 끌어들여 구축하려는 반미·반서방 연대의 역사적 배경에는 8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자리하고 있다.

시진핑과 푸틴 모두 최근 들어 2차대전 당시 자국이 치른 희생과 승리의 기억을 향후 국제 질서에서 더 큰 발언권과 입지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조지프 토리지언 아메리칸대 교수는 시진핑과 푸틴은 모두 서양의 패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자국 모델을 강요하고 중·러의 정당한 입지 확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제 전쟁의 기억을 이용해 미래 세대에게 서구적 가치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신혈맹'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군이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쿠르스크주의 해방을 도왔다며 러시아가 용감하게 싸워준 북한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면 반드시 도울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형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회에 참석한 뒤 같은 차량을 타고 회담장으로 향하는 이례적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등 우방들을 끌어들여 반미·반서방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병식이 진행되던 와중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시진핑의 역사 인식을 공격했다.

중국이 외국 침략자에 맞서 자유를 확보하는 걸 도울 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답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며 "나는 그들이 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2차대전 참전 직전에 당시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의 항일전쟁을 도울 목적으로 1941~1942년 중국에 비밀리에 파견한 부대 '플라잉 타이거'(Flying Tiger·중국명 '비호대〈飛虎隊〉')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트럼프는 또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모의를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언급했다. 시니컬한 역설 화법을 통해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미 CNN은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과 권위주의 지도자, 우방들을 불러 모은 게 미국 대통령에 모욕감을 안겨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완벽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외교 정책은 신뢰할만한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명성을 깎아내렸고 중국이 긴장된 국제정세 속에서 이를 이용하려 한다면서 이번 전승절에서의 북·중·러 규합이 서방의 관심 끌기에 그치지 않고 "관세 압박, 약소국 겁주기,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양안관계, 中 열병식으로 더 얼어붙나

2016년 차이잉원 체제 후 '내리막'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으로 10년 사이 악화 일로를 걸어온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국공(國共·국민당과 공산당) 합작'을 이례적으로 부각하며 '중국과 대만이 일제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열병식에는 항일전쟁에 참가한 국민당 노병들이 초청돼 공산당 노병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 당국은 국민당 노병들을 항일영웅 명단에 포함하고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롄 전 주석과 만나 "항일전쟁 승리는 대만 동포를 비롯한 전 민족이 단결해 투쟁한 결과"라며 "일제 침략으로 민족의 존망이 흔들릴 때 국공 양당은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때 열병식을 계기로 조성된 중국과 대만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그해 11월 시 주석과 마잉주 총통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만난 것은 1949년 양안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 전 총통이 승리한 뒤로 9년여간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권이 이어지면서 양안관계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한국 첫 안보리 회의 주재

한국 안보리 의장국 활동 개시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
24일 AI 고위급 공개 토의
북한 관련 별도 일정 없을 듯

국제 안보 현안의 최고 결정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이 2일(현지시간) 9월 안보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한 달간의 순회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했다.

한국은 의장국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인공지능(AI) 관련 고위급 공개 토의를 열기로 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상진 대사 대리 주재로 비공식 협의를 열어 9월 작업계획을 채택했다.

김 대사 대리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역사는 유엔의 세 기둥인 평화, 발전, 인권을 구현해 왔고 이들 가치는 국가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며 "의장직을 겸손히 맡아 효율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로 24일 오후 'AI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 토의를 연다.

김 대사 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첫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안보리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을 고려해 2023년 이후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다"며 "AI의 혜택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고위급 토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이 의장국을 수행했을 때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관련 별도 일정은 없다. 다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도발할 경우 즉시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

의장국 기간 팔레스타인, 이란 등 중동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도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의장국은 각종 공식 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기관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한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의장국 수임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한국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의장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협의 주재, 유엔 회원국·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

15개 이사국(상임이사국 5개국*)이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 임무 수행, 알파벳 순

한국

2025년 9월 2일 안보리 의사일정 채택 비공식 협의로 임무 공식 개시

논의 예상 쟁점 사안 인공지능(AI) 관련 고위급 공개 토의 방안 계획중, 중동·아프리카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 논의 예상(수임 기간 중)

2025년 월별 의장국 현황

1월	알제리
2월	중국*
3월	덴마크
4월	프랑스*
5월	그리스
6월	가이아나
7월	파키스탄
8월	파나마
9월	한국
10월	러시아*
11월	시에라리온
12월	슬로베니아

연합뉴스

자료: 유엔